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Work-Father Role Conflict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이슬기
교수 전귀연
강사 김수경

Dept.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

Master : Lee, Seul-Gi

Prof. : Jeon, Gwee-Yeon

Lecturer : Kim, Sue-Ky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work-father role conflict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The subjects were 205 fathers who had a child 3 to 6 years old in Daegu.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work-father role conflict according to the child's sex and family income. (2)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child's sex. (3)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ccording to family income. (4)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is influenced by work-father role conflict. (5)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is influenced by parenting stress.

주제어(Key Words): 일-아버지 역할 갈등(work-father role conflict), 양육 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양육 효능감(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I. 서론

현대 산업사회의 급속한 경제체제의 변화와 확대가족의 붕괴로 인해 자녀 양육은 부부 공동의 참여 및 책임이 요구되고 자녀 양육 효능감도 부모 모두가 느끼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정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이 구분되어, 아버지는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자녀에게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역할은 어머니에 의해 전담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는 자녀의 여러 측면의 발달에 중요하다. 특히 자녀의 사회화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며, 아버지도 효율적인 양육자가 될 능력이 있으나, 아버지 역할 및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등한시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으며 그만큼 덜 중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은주영, 류도희, 이귀옥, 2001).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양육 효능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육 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능력을 포함한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끄는(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반면, 양육 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나타낼 뿐 아니라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방해한다(Coleman & Karraker, 1997). 이와 같이 양육자로서 유능하다는 지각은 부모가 느끼는 만족감뿐 아니라 바람직한 양육 행동과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최형성, 2005)이다.

한편, 유아기 애착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대상은 어머니이지만 아버지도 양육능력이 있음을 주장한 Schaffer와 Emerson의 연구(1964)를 시작으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연구결과들을 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인지발달을 강화하고(Radin, 1981) 자녀의 인내심, 이해력, 사회성을 증진시키며 도덕적으로 성숙된 성인으로 발달시키며(Biller, 1993),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역할은 자녀의 모든 측면의 발달에 바람직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은주영 외 2인, 2001).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어머니 다음에 위치하는 이차적인 부모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Lamb, 1975).

근대 사회에서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만 중요하고 아버지는 일터 중심의 문화가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

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버지도 가족 내에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가정에서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우선시하며,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 남자로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노력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김진희, 2004). 이와 함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서 자녀와 놀거나 어떤 가치나 기술을 가르치는 등 표현적인 역할을 할 때 자신이 진정 누군가의 아버지임을 느낀다고 하였다(Cohen, 1987).

그러나 직장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시간의 부족 때문에 가족 내에서 하고 싶은 만큼의 역할을 다 못하여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는 아버지들이 많다. 이렇게 자녀와의 정서적인 접촉을 원하는 남성들은 많아졌으나 일로 인해 생기는 부성 부재의 상황은 아버지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경험으로 작용하게 되었다(서혜영, 1998). 이와 같이 직장은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아버지가 부모로서 유능감을 형성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소지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일-아버지 역할 갈등이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가족을 둘러싼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 수행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김성희, 1990; 김희주, 1997; 이화진, 1995; 장미나, 1994; 정은주, 1990; 허선자, 1992; Ahmeduzzaman & Roopnarine, 1992; Brayfield, 1995; Cohen, 1993; Hawkins & Roberts, 1992; McBride & Darragh, 1995; Peterson & Gerson, 1992)도 아버지의 양육 행동에만 초점을 두었고, 아버지 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일-아버지 역할 갈등이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부모들은 점차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고 있다. 게다가 오늘날은 자녀양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모가 갖게 됨에 따라 부모로서의 부담이 증가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게 되어 자녀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서혜영, 1998).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면 자신감이 결여되고, 자신감의 부족은 과제를 실제보다 어렵게 판단하여 실패의 가능성을 높이며, 이러한 수행 장애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이은숙, 1988). 이처럼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Abidin(1990)에 의해 양육 스트레스로 개념화되었다.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Abidin, 1990; Dumka, Stoerzinger, Jackson & Roosa, 1996; Kotchick *et al.*, 1997; Levy-Shiff, Dimitrovsky, Shulman & Har-Even, 1998; Scheel & Rieckmann, 1998)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간에 부적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아버지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강관혜, 1990; 김정신, 1999; 박혜원, 2003; 전영자, 1996; 조성자, 손은주, 1998; 최한순, 1995)은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의 참여가 가족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로서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일은 남성이 가족 내에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고, 아버지로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은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는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은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이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양육 효능감

양육 효능감은 인간의 행동이 기대, 사고와 신념, 동기 유발과 흥미, 심상 및 상징 등의 인지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하며, 인간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반대로 자기 역량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수록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포기해버린다고 하는 Bandura(1997)의 '자기 효능감 이론'에 그 배경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된 연구에서 양육 효능감에 대한 학자들마다의 개념을 살펴보면, Dorsey 등(1999)은 자녀의 적절한 발달과 관련된 가치 있는 행동을 수행하는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서 양육 효능감을 봤으며 Dumka 등(1996)은 부모가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양육 역할을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Johnston과 Mash(1989)는 자녀 문제를 다루는데서 느끼는 자신감의 정도나 양육 기술, 문제 해결력에 대한 자기 평가 수준이 부모로서의 유능감을 반영한다고 하였고, Teti와 Gelfand(1991)는 효율적으로 양육을 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의 믿음을 양육 효능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양육 효능감은 자녀를 바람직하게 잘 양육하고 지도하며, 자녀와의 문제가 생겨도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 역할 수행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육 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로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자녀양육에서 아버지 자신의 지식이나 노력을 중요한 책임으로 지각하는 아버지들은 부모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자녀의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였으며(Adams & Davis, 1978),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들은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자녀를 능력과 잠재력이 많은 존재로 여겨 문제 해결 상황에 있어서 적절한 도움을 주고 융통성 있고 일관되게 행동하며(Mondell & Tyler, 1981), 자녀에 대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양육 행동을 나타내고, 자녀의 효능감에까지 영향을 준다(우희정, 1993). 게다가 양육 효능감은 부모 역할에의 적응을 돕고 자녀 양육과 연관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주며, 양육 행동의 근원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인지적 특성으로 보았다(안지영, 2001).

또한 양육 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이며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끌고(Coleman & Karraker, 1997; Dorsey *et al.*, 1999; Teti & Gelfand, 1991), 2-6세 자녀에 대해 효율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다(문혁준, 1999). 그리고 유아의 발달과도 관련되어 높은 양육 효능감은 바람직한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되어 있고(Dorsey *et al.*, 1999), 질 높은 양육과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는(Luster & Rhoades, 1993; Mash & Johnston, 1983; Swick, 1987; Teti & Gelfand, 1991) 반면, 낮은 양육 효능감을 소유하고 있는 어머니는 강압적이거나 무기력한 양육행동을 할 뿐 아니라 자녀를 학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관계의 어려움, 부정적인 정서를 보인다(Bugental, Blue & Cruzcosa, 1989; Bugental & Cortez, 1988; Coleman & Karraker, 1997; Teti & Gelfand, 1991). 그리고 이처럼 자녀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처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은 유

아의 분노, 공격성, 불순종, 낮은 자존감, 사회적 위축 등 문제 행동과도 관련되는 경향(Coleman & Karraker, 1997; Dorsey et al., 1999; Patterson, 1980)이 있다.

2.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양육 효능감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직장 생활에서는 누리기 힘든 친밀한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정서적·표현적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Hawkins, Christiansen, Sargent & Hill, 1993). 그리고 유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서 자극을 받은 유아는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 영역에서 자극이 보다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Lamb, Pleck & Levine, 1987).

그러나 비록 아버지가 생존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부재 현상이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김진희, 2005). 남성의 중심세계는 일터이고, 아버지의 의무는 가족 부양의 의무만으로도 충분하다(Bernard, 1981)는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남성의 아버지 역할은 생계 담당자 역할이나 직업 역할과 동일시되어 직장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가족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남성들을 가족으로부터 밀어냈기 때문이다. 즉, 아버지를 생계 담당자로서 지나치게 도구화하는 심리·사회적 환경이 아버지의 자녀 양육 행동을 구속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Ishii-Kuntz, 1993; Lamb et al., 1987; Russell, 1986).

남성들은 보통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잘 놀아주며, 자녀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로 여기고 있으나, 시간적·정신적 여유의 부족으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고, 아이의 교육이나 정서적인 면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스스로의 실제 생활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아버지상과 다르기 때문에 남성들의 대부분이 바람직한 아버지상과 자신의 실제 행동 간의 괴리를 느끼고 갈등을 경험한다고 한다(한경혜, 1997).

일과 가족생활 간의 갈등을 살펴본 여러 연구들을 보면, 직장에 융통성이 있을 경우 일과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Glass & Gamarigg, 1992; Warren & Johnson, 1995), 근무 시간이 증가하면 갈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Judge, Boudreau & Bretz, 1994; Gutek, Searle & Klepa, 1991). 이렇듯 가족생활을 방해하는 직장의 압력은 아버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과 가족 간의 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심리적 긴장이 증가되고(O'Driscoll, Ilgen & Hildreth, 1992), 부모 역할 만족도가 떨어지며,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고(Greenberger & O'Neil, 1993), 가정생활에서 얻

는 보상이나 즐거움 또는 만족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한다(이동열, 1995; Duxbury & Higgins, 1991).

실제로 한 조사(한국여성개발원, 1995)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버지들 중 많은 수가 자상하고 친구 같은 아버지를 바람직한 아버지 상으로 여기면서 자녀와의 정서적인 접촉을 원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주된 역할은 부양자로서의 역할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아버지들 또한 경제력이 부족해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오늘날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바뀌었으나 아버지들은 여전히 일 중심적인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어 일과 아버지 역할 간의 충돌을 경험할 소지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한경혜, 1995). 이는 부성에 대한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아버지의 실제 행동은 천천히 변화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비동시성의 문제이다(LaRossa, 1988). 즉, 부성에 대한 가치나 규범은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아버지 자신의 실제 행동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 대부분 직업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시기이므로 아버지들은 직업적인 성취를 위해 직업 역할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동시에 자녀 양육 참여에 대한 요구는 증가되는 추세로 인해 아버지 역할이 아버지들의 심리적 복지감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Ross & Huber, 1985). 즉, 남성들의 근무시간의 증가는 시간과 에너지라는 제한된 자원을 우선적으로 직업 역할에 쓰게 만들고 그로 인해 가정생활에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삶의 여유가 감소하여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한을 받게 된다(이성희, 한은주, 1998; 이현아, 1994; Small & Riley, 1990; Voydanoff, 1988).

아버지들은 보통 자녀와의 상호 작용시 자녀가 보이는 반응을 통해 자녀를 키우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향상되고, 부모로서의 자신감과 만족감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Baruch & Barnett, 1986; Rogers & White, 1998; Russell, 1986). 그러나 직장일로 인해 갈등을 많이 경험하고 가족생활에 지장을 받는 아버지는 자녀를 키우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생활 만족도와 부모 역할 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김희숙, 1995; 양미경, 1996; 이정권, 1995; Adams, King & King, 1996; Higgins, Duxbury & Irving, 1992; Kossek & Ozekic, 1998; Weigel, Weigel, Berber & DelCampo, 1995).

3.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란 가족생활의 발달적 맥락에서 구체적 상

황 하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가족의 발달과정 속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고성혜, 1994). 자녀 양육 역할 수행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뿐 아니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도 관련되어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고, 주요 생활사건 경험보다 더 중요한 스트레스원으로서 자녀의 문제 행동과 부모의 정신 건강 및 가족 기능을 더 잘 예측한다(Abidin, 1990; Crnic & Greenberg, 1990).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은 부모에게 심리적인 만족감이나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도 가지게 하지만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요구의 증가, 수면의 부족이나 방해, 더 많은 재정적 비용의 필요 등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경험할 수 있고 부모의 개인 생활과 여가 활용의 기회의 제약 등의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뚜렷한 방향제시나 기준도 없이 막연하게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상을 요구하는 불확실한 시대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트레스를 주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정옥분, 정순화, 2000). 게다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가족 구조와 역할이 변화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나 부모 역할에 대한 요구 수준이 증가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박해미, 1994; 한세영, 1996).

유아를 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중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의 힘든 문제점들은 사소하지만 잠재적으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rnic & Greenberg, 1990). 이러한 문제점들은 매일 반복하여 경험하고 누적되므로 부모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자녀의 발달에도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전춘애, 박성연, 1998).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로서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며 생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유우영, 1998),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 역기능적이고 무당한 양육행동을 하게 되며(Abidin, 1990),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거부적이고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신숙재, 1997).

한편, 부모로서의 유능감은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받는다(Elder, Eccles, Ardet & Lord, 1995; Ferketich & Mercer, 1994). 즉,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적 정서 상태는 개인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하는 것으로, Dumka 등(1996)은 어머니의 높은 스트레스가 양육 능력에 대한 어머니들의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생리적이고 정서적인 상태에 의해 전달되는 신체적 정보에 의존해서 자기의 능력을 판단한다. 자기 효능감의 신체적 지표는 신체적 성취, 건강,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대처를 포함하는 영역과 특별히 관련되어 있다(이중문, 2004). Kotchick 등(1997)은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능력이나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evy-Shiff 등(1998)은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 효능감 중에서도 특히 양육 효능감에 더 큰 부정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고, 두 금주(2002)는 불안, 스트레스, 각성, 피로, 정서 상태와 같은 생리적 상태는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Scheel과 Rieckman(1998)은 부모가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세에서 6세까지의 자녀를 둔 아버지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시한 <표 1>을 보면, 남아를 둔 아버지는 48.8%, 여아를 둔 아버지는 51.2%였다. 아동의 연령은 3세 18.5%, 4세 21.5%, 5세 30.7%, 그리고 6세 29.3%였다. 아버지의 연령은 35세 이하 46.3%였고, 36세 이상 53.7%였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 37.1%, 대졸 이상 62.9%였다. 직업은 사무직 27.8%, 숙련직 27.3%, 판매직 22.9% 순서였다. 결혼기간은 6년에서 10년 사이가 61.5%로 가장 많았고 가족 수입은 150만원에서 399만원 사이가 69.7%로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1) 양육 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로서의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Gibaud-Wallston와 Wandersman(1978)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신숙재(1997)가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숙재(1997)의 연구에서 요인분석한 결과 부모 역할에서의 유능감이나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문제해결 기술과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기대를 측정하고 있으므로 '부모 효능감'이라고 명명한 9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 효능감이 많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육 효능감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89이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N=205)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아동 성별	남	100(48.8)	부의 직업	무직 및 비숙련직	10(4.9)
	여	105(51.2)		숙련직	56(27.3)
아동 연령	3세	38(18.5)		판매직	47(22.9)
	4세	44(21.5)		사무직	57(27.8)
	5세	63(30.7)	관리직 및 전문직	35(17.1)	
	6세	60(29.3)			
부의 연령	35세 이하	95(46.3)	부의 학력	고졸이하	76(37.1)
	36세 이상	110(53.7)		대졸이상	129(62.9)
결혼 기간	5년 이하	49(23.9)	가족 수입	상(400만이상)	26(12.7)
	6-10년	128(61.5)		중(150-399만)	143(69.7)
	11년 이상	30(14.6)		하(149만이하)	36(17.6)

2) 일-아버지 역할 갈등

일-아버지 역할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Small과 Riley(1990)이 제작한 Work Spillover Scale(WSS)을 기초로 서혜영(1998)이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WSS는 직장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여가 생활, 가정 관리 등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 서혜영(1998)의 연구에서는 WSS에서 부모 역할과 관련된 다섯 문항을 선정하고 그 외 예비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주로 겪는 일-아버지 역할 갈등 사항인 시간 제약, 에너지 제약, 심리적 제약의 세 문항을 첨가하여 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로 인해 아버지 역할 수행에 지장을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계수는 .85이다.

3)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는 Abidin(1990)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PSI: Parenting Stress Index)를 번역한 이한우(1998)의 척도 중 아동 특성 영역 12문항과 부모 특성 영역 12문항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아동에게서 느끼는 스트레스인 아동 특성 영역의 문항 내용은 활동성, 부모강화, 기분/감정, 수용성, 적응성, 요구성이며, 부모 자신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모 특성 영역의 문항 내용은 유능성, 애착, 침체성, 억압성, 배우자 관계, 사회적 고립, 건강 등이다.

5점 Likert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많음을 나타낸다.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영역별 Cronbach' α 계수는 아동 특성 영역 .81, 부모 특성 영역 .82이다.

3. 자료의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05년 7월부터 9월까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아교육 기관 5곳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

지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총 500부를 배부하여 210부가 회수되어 42%의 회수율을 나타내었으며, 응답이 부실한 5부를 제외한 20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PC+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 일-아버지 역할갈등 및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일-아버지 역할 갈등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일-아버지 역할 갈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일-아버지 역할 갈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F=4.94, p<.05), 남아의 경우 일-아버지 역할 갈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딸보다는 아들에게 지적이고, 독립적이고, 야망을 가지기를 원하는 등 성취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하고(Block, 1973; Hoffman, 1997) 기대를 많이 하는 만큼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더 좋은 역할모델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해줘야함으로 인해 역할 간 갈등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아동의 연령은 일-아버지 역할 갈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연령도 일-아버지 역할 갈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 자신의 연령은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다는 서혜영(1998)과 Higgins, Duxbury & Lee(1994) 및 조원지(2001)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아버지들은 가족이나 부모 역할보다는 여전히 일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도 일-아버지 역할 갈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영업·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보다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가 높다는 김진희(2004)의 연구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리직/전문직 계층의 아버지들은

〈표 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의 차이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é
성별	남	100	2.45	.45	4.94*	
	여	105	2.29	.57		
아동연령	3세	38	2.41	.59	.27	-
	4세	44	2.36	.46		
	5세	63	2.39	.51		
	6세	60	2.32	.54		
부의연령	35세 이하	95	2.37	.50	.00	
	36세 이상	110	2.37	.54		
부의직업	무직/비숙련직	10	2.59	.51	1.97	-
	숙련직	56	2.47	.52		
	판매직	47	2.39	.55		
	사무직	57	2.25	.43		
	관리직/전문직	35	2.30	.60		
부의학력	고졸이하	76	2.39	.56	.30	
	대졸이상	129	2.35	.50		
결혼기간	5년 이하	49	2.33	.56	.37	-
	6-10년	126	2.39	.53		
	11년 이상	30	2.32	.40		
가족수입	상(400만원이상)	26	2.10	.56	4.06*	b a ab
	중(150-399만원)	143	2.41	.51		
	하(149만원이하)	36	2.37	.50		

* $p < .05$

보다 좋은 경력을 얻기 위해, 판매직이나 숙련직 계통의 아버지는 관리직/전문직 계통의 아버지에게 비해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해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때문에 일-아버지 역할 갈등이 직종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버지의 학력도 일-아버지 역할 갈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는 서혜영(1998)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결혼 기간에 있어서도 일-아버지 역할 갈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결혼 기간에 따라 가족 역할 갈등 중 하위 변인인 자녀 양육 갈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안용자(2000)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는 결혼기간이 긴 아버지나 결혼기간이 짧은 아버지나 똑같이 유아기 자녀를 키우는 미취학 아동기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가족의 수입에 따라 일-아버지 역할 갈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4.05, p < .05$) 사후검증 결과, 수입이 150-399만원인 중간 집단이 400만원 이상의 상위 집단보다 일-아버지 역할 갈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남성의 역할 갈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김양호와 김태현(1998)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간 집단의 경우 상위 집단으로 가려하는 상승 욕구가 있어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자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아버지 역할 갈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본다면, 본 연구에서 일-아버지 역할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아동의 성별과 가족의 수입이었다.

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나타난 대로,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F=7.75, p < .01$) 여아보다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아보다 남아를 키울 때의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고영미, 1995; 박경자, 권연희, 2002; 신숙재, 1997)과는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남아의 경우 아버지가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여아인 경우 키우기 쉬우나 아들의 경우는 불복종적 태도나 활동적인 행동 때문에 아들을 다루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사고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녀가 남아일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으며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직장에서의 업무 등으로 인해 이를 적절히 실행하지 못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큰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

〈표 3〉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성별	남	100	2.32	.46	7.76**
	여	105	2.13	.51	
아동연령	3세	38	2.17	.52	.21
	4세	44	2.24	.44	
	5세	63	2.22	.47	
	6세	60	2.24	.54	
부의연령	35세 이하	95	2.19	.45	.72
	36세 이상	110	2.25	.52	
부의직업	무직/비숙련직	10	2.34	.57	1.06
	숙련직	56	2.32	.50	
	판매직	47	2.18	.49	
	사무직	57	2.16	.47	
	관리직/전문직	35	2.19	.50	
부의학력	고졸이하	76	2.20	.47	.14
	대졸이상	129	2.23	.50	
결혼기간	5년 이하	49	2.22	.52	.13
	6-10년	126	2.23	.50	
	11년 이상	30	2.18	.44	
가족수입	상(400만원이상)	26	2.08	.53	1.78
	중(150-399만원)	143	2.22	.51	
	하(149만원이하)	36	2.32	.37	

** $p < .01$

다.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에서 아버지들은 아들에 대해 부모로서의 책임과 더 잘 키워야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딸들이 아버지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배계영(2004)의 연구와는 맥락을 같이 한다.

아버지의 연령에 있어서도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정영애(200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 경우엔 경험 부족으로 인해,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하는 동안 발생하는 다른 여러 방면의 문제가 증가되어 이에 따른 책임이 늘어난 데 기인한 결과라고 추측된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의 교육 정도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던 이지희(2005)와 정영애(200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학력이 높은 경우엔 자녀 양육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다 실천할 수 없음으로 인해 그리고 학력이 낮은 경우엔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준비나 교육 부족으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결혼기간에 따라서도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결혼 지속 연수에 따라

가족 역할 갈등 중 하위 변인인 자녀 양육 갈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안용자(2000)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결혼 기간이 짧은 경우는 부부의 적응력과 애정이 높기 때문이고 결혼 기간이 긴 경우는 가족 생활과 직장 생활에 안정된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에 차이가 없는 것일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양육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지희(2005)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가족 수입에 따라서도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가계 수입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배계영(2004)의 연구와는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 역할과 기대는 아버지의 직업이나 가족 수입에 관계없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아동의 성별 뿐 다른 변인들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는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고 일치되지 않아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3.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 효능감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 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성별과 아동의 연령 등 아동에 관련된 변인에 따른 양육 효능감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아버지의 연령, 직업, 학력 그리고 결혼 기간 등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에 따라서도 양육 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족의 수입에 따라서는 양육 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났다($F=6.44, p < .01$). 즉, 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의 양육 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입에 따라 아버지의 유능함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난 김진희(2004)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하였다.

가족의 수입이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전통적인 사회 문화적 역할 기대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보여 진다. 자녀를 양육 할 때 부모는 금전적으로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들은 가족을 잘 부양할 때 자신이 아버지로서 주된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고 아버지로서 유능하다고 인지하는 반면, 수입이 낮은 아버지는 경제적 안정이 부족하므로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불안과 좌절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한국의 아버지들 자녀양육보다는 일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에서 보다 유연하고 근대적인 가치관으로 변화 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가치관의 변화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상당수 아버지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을 고수함으로 인해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양육 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최형성(2005)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아들일 경우엔 딸에 비해 더 많은 공유 영역을 갖게 되므로 아들과 관계를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는(이성희, 한은주, 1998) 반면, 딸일 경우엔 아들에 비해 불복종적 태도나 활동적인 행동이 적어서 키우기 쉽기 때문에 효능감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연령에 있어서는 양육 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동 연령 증가가 양육 효능감 감소와 관련되지 않는다고 한 Johnston과 Mash(198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아버지의 연령에서도 양육 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양육 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남덕임(200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 경우엔 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부족과 경제적·직업적 안정을 얻기 위해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직장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기 때문이고,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 경우엔 체력의 저하로 인해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도 양육 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직업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남덕임(200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는 아버지가 생계 담당자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버지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직업의 종류보다는 수입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양육 효능감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부모 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진숙, 한지현(200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아버지 역할을 위한 준비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적응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아버지 역할보다는 사회인으로서의 직업 역할

<표 4>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의 차이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é	
성별	남	100	3.18	.54	.00		
	여	105	3.18	.62			
아동연령	3세	38	3.23	.68	.64	-	
	4세	44	3.21	.51			
	5세	63	3.10	.60			
	6세	60	3.21	.53			
부의연령	35세 이하	95	3.21	.56	.37		
	36세 이상	110	3.16	.60			
부의직업	무직/비숙련직	10	3.06	.46	2.25	-	
	숙련직	56	3.08	.59			
	판매직	47	3.18	.60			
	사무직	57	3.14	.48			
	관리직/전문직	35	3.43	.65			
부의학력	고졸이하	76	3.13	.63	.79		
	대졸이상	129	3.21	.55			
결혼기간	5년 이하	49	3.20	.60	.31	-	
	6-10년	126	3.16	.56			
	11년 이상	30	3.24	.62			
가족수입	상(400만원이상)	26	3.55	.59	6.45**	a	
	중(150-399만원)	143	3.13	.57			b
	하(149만원이하)	36	3.10	.49			

**p<.01

을 선호하는 개인적인 특성도 있기 때문에 양육 효능감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결혼 기간에 따라서도 양육 효능감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혼 유아 교사의 결혼기간에 따라 자기 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용인경(2003)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가족의 수입뿐이었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족의 수입에 따라 양육 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들이 경제적 가계 부양자 역할을 아버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 일-아버지 역할 갈등이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일-아버지 역할 갈등이 양육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나타난 대로, 일-아버지 역할 갈등은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F=44.20, p<.001$). 즉, 일-아버지 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양육 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아버지 역할 갈등은 양육 효능감을 18%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 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직장의 압력은 아버지들이 부모로서 느끼는 유능감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고(서혜영, 1998), 일-가족 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신의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불만이 크며, 스스로 부적절한 부모로 인식한다는(Greenberger & O'neil, 1993) 선행 연구들의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부모로서의 유능감이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상황이나 자녀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때 증대된다(Frank, Hole, Jacobson, Justkowsky & Huyck, 1986). 양육에 많이 참여하는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를 다루는 법을 익힘으로써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많고, 자신을 부모로서 유능한 존재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 부담은 자녀와 함께할 기회를 감소 시킴으로써 자녀에 대한 지식, 양육 기술, 문제 해결력 등을

습득할 기회를 빼앗아가고,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이렇게 자녀와 접촉할 기회가 적어졌을 경우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할지 자신감을 상실하기 쉽다(DeLuccie & David, 1990). 일-아버지 역할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아버지는 자녀가 주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또는 일-아버지 역할 갈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가 전이되어 양육 효능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 따르면, 양육 스트레스 중 아동 영역은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 영역은 양육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17.56, p<.001$). 즉,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중 부모 영역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 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 효능감을 14%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원이 적거나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양육 효능감이 낮았고(신숙재, 1997; Cutrona & Troutman, 1986; Frank *et al.*, 1986; Teti & Gelfand, 1991),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경향을 보인 김현미와 도현심(2004)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양육 효능감과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른 선행 연구들(최형성, 2005; Dumka *et al.*, 1996; Kotchick *et al.*, 1997; Levy-Shiff *et al.*, 1998; Scheel & Reickmann, 1998)과도 맥락을 같이 하였다.

부모로서의 유능감은 심리적으로 저조한 상태에 있을 때, 개인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한다(Elder *et al.*, 1995; Ferketich & Mercer, 1994).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자신의 양육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기 쉽다.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 사건을 본인이 지

<표 5> 일-아버지 역할 갈등이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D·W=1.85)	양육 효능감	
	B	β
일-아버지 역할 갈등	-.47	-.42***
F	44.20***	
R ²	.18	

*** $p<.001$

<표 6>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D·W=1.96)	양육 효능감	
	B	β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아동영역	-.09
	부모영역	-.35
F	17.56***	
R ²	.14	

** $p<.01$ *** $p<.001$

각하는 강도가 아버지의 심리적 상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Crnic & Greenberg, 1990), 아동 특성 영역이 아닌 부모 특성 영역의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는 성별과 수입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남아를 둔 아버지와 150만원에서 399만원까지의 중간 집단의 아버지들이 일-아버지 역할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아버지들의 아들에 대한 기대와 선호에 따른 책임감, 가계 부양자로서의 부담 및 중산층으로 도약하려는 상승 욕구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만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자녀가 남아인 경우에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꼈다. 이는 아들을 키우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일반적 사고와 남아에 대해서 아버지들이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아버지 대상의 부모교육 시 자녀의 성별에 따라 교육의 특성과 내용을 달리한다면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가족의 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양육 효능감이 가장 높았다. 이는 아직도 우리사회의 아버지들이 자녀양육보다는 일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을 잘 부양할 때 자신을 유능하다고 인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이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일-아버지 역할 갈등 변인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부모 역할을 할 때 갈등을 적게 느끼면 양육 효능감은 증가될 것이므로 일-아버지 역할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휴직제도, 근무조건의 융통성 등과 같은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일-아버지 역할 갈등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는 양

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보다 유능하다고 지각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양육 스트레스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이므로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한 양육 스트레스의 감소로 양육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구 지역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므로,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 척도 사용 시 Abidin(1990)의 원래 척도 중 일부만을 사용한 이한우(1998)의 척도 중에서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만을 측정하였으므로 주요 생활 사건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가 인구통계학적 배경이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일-아버지 역할갈등과 양육 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개개의 영향만을 살펴보았다. 추후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뿐 아니라 개인특성, 가족특성 및 직장관련 변인 등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변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양육효능감에 대한 보다 입체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자료는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나 그 회수율이 낮아(42%) 연구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란혜(1990).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역할 특성간의 관계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2), 21-37.
 고영미(1996).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 및 가족변인과 성별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1990). 유아기 아버지의 역할수행 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양호, 김태현(1998). 맞벌이 가족 남성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81-94.
- 김정신(1999). 아버지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희(2004). 아버지로써의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이론과 실천*, 14(1), 89-114.
- 김진희(2005). 남성의 아버지 역할 수행과 유능감에 관한 연구-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남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13-123.
- 김현미, 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김희숙(1995). 두 자녀 아버지의 심리적 경험과 역할수행.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주(1997).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덕임(2004). 어머니의 양육 신념 및 양육 효능감과 유아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 정도와의 관계.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두금주(2002).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 효능감이 자녀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박경자·권연희(2002).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과 관련된 변인: 결혼 만족도, 자녀양육 스트레스, 애착 안정성. *아동학회지*, 23(4), 53-69.
- 박해미(1994). 자녀양육 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박혜원(2003). 유아기 부모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생활과학논문집*, 4(2), 88-95.
- 배계영(2004). 맞벌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혜영(1998).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 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용자(2000). 배우자의 특성에 따른 기혼 여교사의 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부모역할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 용인경(2003). 기혼 유아 교사의 가정내 역할 갈등과 자기효능감 및 직무 만족도와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희정(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 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1), 71-90.
- 유우영(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어머니 양육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은주영·류도희·이귀옥(2001). 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경성대학교 논문집*, 22(1), 323-334.
- 이동열(1995). 직장-가정갈등이 구성원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성희, 한은주(1998). 기혼남성의 아버지 역할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23-39.
- 이은숙(1988).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권(1995). 갈등이 구성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희(2005).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및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한우(1998). 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 비교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아(1994). 남편의 생활시간 구조와 가정생활문제에 관한 주부의 지각: 장시간 노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화진(1995).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미나(1994). 남성의 직업역할과 결혼만족도가 아버지 역할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영자(1996). 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아동·가족복지연구*, 1, 159-177.

- 전춘애, 박성연(1998).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95-105.
- 정영애(2004). 취학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옥분, 정순화(2000). *부모교육-부모역할의 이해*. 서울: 양서원, 2000.
- 정은주(1990).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한 부, 모, 아동의 시각.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성자, 손은주(1998).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카톨릭교육연구*, 8, 39-62.
- 조원지(2001). 아버지 역할수행, 직업 역할수행 및 직업역할에 의한 역할 방해정도가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한순(1995).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형성(2005).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및 아동의 기질. *아동학회지* 26(1), 317-328.
- 한경혜(1995). 중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95 가정복지 세미나 자료집, 35-80.
- 한경혜(1997). 아버지상의 변화.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남성과 한국사회*.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한국여성개발원(1995). *부성개발에 관한 연구*. 1995년도 연구보고서.
-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 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dams, G. A., King, L. A., & King, D. W. (1996). Relationships of job and family involvement, family social support, and work-family conflict with job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4), 411-420.
- Ahmeduzzaman, M. & Roopnarine, J. L. (1992). Sociodemographic factors, functioning style, social support, and fathers' involvement with preschoolers in African-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699-707.
- Backett, K. (1987). The negotiation of fatherhood. In C. Lewis & M. O'Brien (Eds.), *Reassessing fatherhood: New observation on fathers and the modern family* (pp. 74-90). Newbury Park, CA: Sage.
- Bandura (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aruch, G., & Barnett, R. C. (1986). Consequence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Parents' role strain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5), 983-992.
- Bernard, J. (1981). The good-provider role: Its rise and fall. *American Psychologist*, 36(1), 1-12.
- Billler, H. B. (1993). *Fathers and Families: Paternal Factors in Child Development*, Auburn House.
- Block, J. H. (1973). Conceptions of sex 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512-526.
- Brayfield, A. (1995). Juggling jobs and kids: The impact of employment schedules in fathers' caring for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321-332.
- Bugental, D. B., Blue, J., & Cruzcosa, M. (1989). Perceived control over caregiving outcomes : Implications for child abus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32-539.
- Bugental, D. B., & Cortez, V. (1988). Physiological reactivity to responsive and unresponsive children-As modified by perceived control. *Child Development*, 59, 686-693.
- Cohen, T. F. (1987). Remaking men: Men's experiences becoming and being husbands and fathers and their implications for reconceptualizing men's lives. *Journal of Family Issues*, 8, 57-77.
- Cohen, T. F. (1993). What do fathers provide? In J. C. Hood (Ed.), *Men, Work and Family*(pp. 1-22). Newbury Park, CA: Sage.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56, 754-761.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DeLuccie, M. F., & Davis, A. J. (1990). Father-child

- relationship from the preschool years through mid-adolescenc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2, 225-238.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 (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effica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Duxbury, L., & Higgins, C. (1991). Gender differences in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60-74.
- Edler, G. M., Eceles, J. S., Ardet, M., & Lord, S. (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Perspectives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771-784.
- Ferketich, S., & Mercer, R. T. (1994). Predictors of paternal role competence by risk status. *Nursing Research*, 43(2), 80-85.
- Frank, S., Hole, C. B., Jacobson, S., Justkowski, R., & Huyck, M. (1986). Psychological predictors of parents' sense of confidence and control and self-versus child-focused grat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48-355.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Glass, J., & Camarigg, V. (1992). Gender, Parenthood, and job-family compatibi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1), 131-151.
- Greenberger, E., & O'Neil, R. (1993). Spouse, parent, worker: Role commitments and role-related experiences in the construction of adults'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181-197.
- Guttek, B. A., Searle, S., & Klepa, L. (1991). An exploratory path analysis of the stress process for dual-career men an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51-164.
- Hawkins, A. J., Christiansen, S. L., Sargent, K. P., & Hill, E. J. (1993). Rethinking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Journal of Family Issues*, 14, 531-549.
- Hawkins, A. J., & Roberts, T. (1992). Designing a primary intervention to help dual-earner couples share housework and child care. *Family Relations*, 41, 169-177.
- Higgins, C., Duxbury, L., & Irving, R. H. (1992). Work-family conflict in dual-career famil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1, 51-75.
- Higgins, C., Duxbury, L., & Lee, C. (1994). Impact of life-cycle stage and gender on the ability to balance work and family responsibilities. *Family Relations*, 43, 144-150.
- Hoffman, L. W. (1977). Changes in family roles, socialization, and sex dif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2, 664-657.
- Ishii-Kuntz, M. (1993). Japanese fathers: Work demands and family role. In J. C. hood (Ed.), *Men, work and family*(pp. 45-67). Newbury park, CA: Sage.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97-175.
- Judge, T. A., Boudreau, J. W., & Bretz, R. D. (1994). Job and life attitudes of male executiv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5), 767-782.
- Kelly, R., & Voydanoff, P. (1985). Work/Family role strain among employed parents. *Family Relations*, 43, 367-374.
- Kossek, E. E., & Ozekic, C. (1998). Work-family conflict, policies and the job-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A review and directions for organizational behavior-human resources researc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2), 139-149.
- Kotchick, B. A., Forehand, R., Brody, G., Armistead, L., Simon, P., & Clark, L. (1997). The impact of maternal HIV infection on parenting in inner-city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4), 447-461.
- Lamb, M. E. (1975). "'Father' Forgotten Contributor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 pp. 245-266.
- Lamb, M. E., Pleck, J. H., & Levin, J. A. (1987). *Effects of increased paternal involvement on fathers and*

- mothers. IN C. Lewis & M. O'Brien(Eds.). Reassessing fatherhood: Mew observation on fathers and the modern family. Newbury Park, CA: Sage.
- LaRossa, R. (1988). Fatherhood and Social change. *Family Relations*, 37, 451-457.
- Levy-Shiff, R., Dimitrovsky, L., Shulman, S., & Har-Even, D. (1998). Cognitive appraisals,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resources as correlates of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1417-1427.
- Luster, T., & Rhoades, K. (1993). The relation between child-rearing beliefs and the home environ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Family Relations*, 38, 317-322.
- Mash, E. J., & Johnston, C. (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older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86-99.
- McBride, B. A., & Darragh, J. (1995). Interpreting the data on father involvement: Implications for parenting programs for men.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76(8), 490-497.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O'Driscoll, M. P., Ilgen, D. R., & Hildreth, K. (1992). Time devoted to job and off-job activities, interrole conflict, and affective experienc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3), 272-279.
- Patterson, G. R. (1980). Mothers: The unacknowledged victim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5(5), 212-232.
- Peterson, R. R., & Gerson, K. (1992). Determinants of responsibility for child care arrangements among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527-536.
- Radin(1981). Child-rearing fathers in infant families. *Merrill Palmer Quarterly*, 27, 489-514.
- Rexroat, C., & Shehan, C. (1987). The family life cycle and spouses' time in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37-750.
- Rogers, S. J., & White, L. K. (1998). Satisfaction with parenting: The role of marital happiness, family structure, and parents'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293-308.
- Ross, C. E., & Huber, J. (1985). Hardship and Depression.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4), 312-327.
- Russell, G. (1986). Primary caretaking and role-sharing fathers. In M. E. Lamb (Ed.),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pp.9-57)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 Schaffer. H. P., & Emerson. P. E. (1964). The Development of Social Attachments in Infancy.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9
- Scheel, M. J., & Rieckmann T. (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15-27.
- Small, S. A., & Riley, D. (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Work Spillover into Family Lif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51-61.
- Swick, K. J. (1987). Teacher reports in parental efficacy-involvement relationship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14, 125-132.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Voydanoff, P. (1988). Work Role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Demands, and Work/Family Conflict.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49-761.
- Warren, J. A., & Johnson, P. J. (1995). The impact of work place support on work-family role strain. *Family Relations*, 44, 163-169.
- Weigel, D. J., Weigel, R. R., Berger, P. S., & DelCampo, R. (1995). Work-family conflict and quality of family life: Specifying linking mechanisms. *Family & Consumer Sciences Research*, 24(1), 5-28.

(2006년 9월 14일 접수, 2006년 12월 8일 채택)